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29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2024년 10월 20일 / 제660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석근수 제1독서 함용기 제2독서 함소연 / 입당 63 봉헌 210, 216 성체 506, 153 파견 457  
Narrator Hawlan Ng 1<sup>st</sup> Reader Jun Vincencio 2<sup>nd</sup> Reader Noella Lee

입당송 | 시편 67(66),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1-5

화답송 | 시편 98(97),1,2-3 7,8,3ㄷㄹ-45-6(◎ 2 참조 또는 3ㄷㄹ)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하게 부리소서.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9-18

복음환호송 |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마태 28,20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10월 20일	주일학교 YES	Fr. Ben
10월 27일	주일학교 YES	Fr. Peter
11월 03일	주일학교 YES	Fr. Augustine
11월 10일	주일학교 YES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과 춤 그리고 포옹

저는 서울 외곽에 살기에 명동성당 가는 길이 기뻐집니다. 삶을 누리는 화사한 이들 틈에서 걷다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부풀니다. 그런데 가끔 거리의 음악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웃음을 머금고 걷는 이들 사이에서 그들의 환희를 책망하듯, 심판과 지옥을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제가 아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들이 외치는 익숙한 단어들에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거리를 걷는 평범한 이들의 기쁨에 함께하시고, 이들의 실수에 아파하시며, 화려함 뒤에 숨은 공허함도 안아주시는 분일 텐데 지옥을 외치는 목소리 앞에서 저는 오히려 외로워집니다. 그 외침이 흥겨운 음악 소리를 덮듯이, 우리가 아는 좋으신 하느님도 덮어버릴까 봐 초조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이 아름다운 약속 앞에서 세례받은 우리의 사명인 선교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보다도 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것이 선교인지 떠올려 봅니다. 기쁨의 순간이든 분노의 순간이든 고통과 절망, 환희와 반성이 교차하는 모든 시간에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앞에 비추어보며 말이지요. 그리고 명동 거리에서 들은 그 외침이 우리가 할 선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선교는 오히려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비슷할 겁니다. 또 그 음악에 맞춰 추는 춤에 가깝습니다. 좋은 음악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춤이 우리가 할 선교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또한 선교는 누군가를 끌어안는 포옹과 비슷합니다. 그가

내 품에 안기기까지 걸어온 길과 흘린 땀, 마음속에 자리한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는 끌어안음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억박지르기보다 물러나심으로, 승리의 함성보다는 새벽의 침묵으로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교 주일을 맞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구의 교세가 아닐 겁니다. 교우들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과 하느님 덕분에 행복한 이들의 행복감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느님은 당신과 일치한 단 한 명의 사람으로도 교회와 세상을 바꾸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위해 살피야 하는 것은 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에 맞춰 추는 나의 춤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 이웃이 나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나의 귀에 들리는 그 좋은 음악이 그들에게도 들린다는 증거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추는 춤에 함께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춤에 감명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으로 인해 기쁘다면, 그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은 나를 넘어 이웃과 낯선 이를 채우고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이한석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등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b>STAR태권도</b>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미술교실</b> 전문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우리는 보통 미사 때 지향을 두고 기도합니다. 미사에 참례하면서 각자 마음속으로 지닌 지향도 있겠지만, 보통 미사 전에 해설자나 또는 미사를 주례하시는 신부님께서 오늘 미사는 누구누구를 위해 지향을 두고 봉헌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곤 합니다.

이렇게 ‘미사가 누구를 위하여’ 바쳐지는 것을 ‘미사 지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제가 그 지향을 기억하며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미사가 오로지 그분들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미사 지향을 넣은 분들이 그 미사를 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구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 경본 총지침, 79항) 봉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사 때 지향이 있는 것은 사제가 그 지향을 미사 안에서 특별히 기억하며 신자들과 함께 기도함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사 지향을 우리는 보통 ‘생미사’와 ‘연미사’로 나누곤 합니다. 생(生)미사는 살아 있는 이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가정 또는 공동체에 하느님의 은총과 필요한 도우심이 주어지길 청하거나, 지난 시간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미사입니다. 반면에 연(煉)미사는 우리가 참례하는 미사의 공로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위해 나누려는 뜻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미사입니다. 연미사

는 보통 ‘연옥(煉獄, purgatory)에 있는 이를 위해 드리는 미사’를 줄여서 표현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위령(慰靈)미사’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 지향과 관련해서 보통 본당에서는 미사 전에 해설자가 알려 주거나, 또는 미사 경본 총지침 50항의 “교우들에게 인사가 끝나면, 사제나 부제나 평신도 봉사자는 그날 미사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말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미사 시작 때 주례 사제가 말하곤 합니다(하지만 이 지침의 본래 의미는 전례력에 따른 그날 미사의 전례적, 성서적 주제와 의미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을 말 합니다). 하지만 미사 지향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 지향으로 미사가 봉헌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사 때 지향을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제의 영적이고 내적인 행위이기에 반드시 신자들 앞에서 공표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지향을 공표하지 않아도 사제가 미사 때 그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하였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미사 지향 알림은 이러한 사제와 더불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에게 그 지향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하느님 안에서 더욱 서로가 일치되기 위한 하나의 초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b>SUE CHO</b>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b>Elizabeth Jihyun Kim, DDS, MS</b>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b>AIDEN KIM</b> 에이든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p>	<p>DRE # 01983236  <b>AIDEN KIM</b>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p>
<p><b>West Dublin PETSMART</b> <b>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b>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b>James Golf Class</b>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b>하나비 스시</b> 계상진 빈첸시오 <b>SUSHI HANABI</b>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 10-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0월 19일(토): 제27차 서중부 전체 올드레야 대회
- 10월 20일(주일): 연중 제29주일(전교 주일)  
※ 교중미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됩니다.(매일미사 118쪽 참조)
- 10월 21일(월) - 25일(금): 지구 사제 연수  
(사제 연수 기간 중 평일 미사 없음)
- 11월 2일(토):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 11월 3일(주일):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

■ 성령기도회 10월 모임

- 일시: 10월 25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Room A
- 문의: 박민숙 엘리사벳

■ 주일학교 할로윈 이벤트

- 일시: 10월 27일(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 장소: 체육관
- 내용: 코스튬 퍼레이드, 게임 등의 할로윈 액티비티
- 대상: 주일학교 학생(K 미만의 어린이들의 참여도 환영)

■ 2024 성모회 총회

- 일시·장소: 10월 27일(주일), 오전 10시 40분·Room A
- 대상: 성모 회원 및 예비 회원

■ 위령 성월 묘지 방문 연도 및 미사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1시 30분 연도, 2시 미사
- 장소: Gate of Heaven Catholic Cemetery
- 오클랜드 본당과 산호세 본당도 함께 참여합니다.

■ 미주 가톨릭 성서모임 주관 "말씀의 초막절에 초대합니다."

-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 - 4시: 홍승의 가브리엘 신부 강의
- 10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홍신부와의 만남의 시간(질의 응답 시간)
- 10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주간 나눔 예절(때제기도)
- 북가주와 캐나다 신자들은 행사 중 강의 부분만 비대면(Zoom)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 후 안내 데스크에서 해드립니다.

■ 10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4cellmeeting)

루카 3	10/20(일) 1:00PM	플레즌튼파리바게트	619 889 7835
------	-----------------	-----------	--------------

■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주보·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78	\$483	\$2335	\$190	\$190	\$467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류경걸(10-12), 박종태(7-10), 이주하(10), 이희열(10,11), 장찬(10), 조원정(10,11), 하창완(10)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류경걸(10-12), 박종태(7-10), 이주하(10), 이희열(10,11), 조원정(10,11), 하창완(10)

- Bishop's Appeal

류경걸(10-12), 박종태(7-10), 이주하(10), 이희열(10,11), 조원정(10,11), 하창완(10)

- 감사헌금 버클리천진암학생회

- 간식봉헌 함종식 마티아·이복준 세실리아 / 주영근 사도요한·주은경 루시아

10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공동 사명

For a shared mission

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 안에서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면서 공동책임성의 표지인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나가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the Church continue to sustain in all ways a Synodal lifestyle, as a sign of co-responsibility, promoting the participation, the communion and the mission shared among priests, religious and lay people.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